

세계화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김 항 원*

1.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란 말은 1990년대 후반에 김영삼 정부가 국정의 슬로건으로 내건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이 말은 1990년대의 화두로 등장하여 21세기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중심개념이 되고 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이 두 용어의 함축적 의미는 다르다. 국제화는 민족국가의 존재 및 이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인데 비해, 세계화는 고도로 발달된 통신, 기술, 교통 혁신으로 가능해진 국가들과 사회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연결과 상호관계를 지칭하며 그것을 기존의 민족국가 개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 협력, 통합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가 선진적인 법, 제도, 의식, 관행에 우리의 것을 맞추어 나가는 피동적·소극적 의미가 강한데 비해, 세계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창조적, 적극적 의미가 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

세계화란 금융, 생산, 기술, 정보, 문화, 환경, 안보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범 세계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경향이다.²⁾ 이 같은 세계화는 정보 통신과 인터넷 혁명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에서 비롯되었다. 세계화는 경제적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영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세계화의 내용으로는 개방화, 효율화와 능률화,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의 건설, 분권화와 지방화 등을 들 수 있다.³⁾ 개방화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을 뜻하며, 효율화와 능률화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및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규칙과 관행이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보편화, 평균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세계화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의사회 건설'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만이 사회 안정을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의 바탕 없이는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권화와 지방화를 보면, 세계화 추세는 분권화를 요구하며, 분권화의 여러 형태 중의 하나인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방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세계화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 사회의 정보화와 지식화가 가속화되며, 경제와 기술이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무한 경쟁이 교차하고, 환경문제가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이슈로 대두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포괄하는 통합성과 각자의 상이점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공존하고, 민족국가로부터 하위의 문화집단이나 지역집단에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며 시민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세계화는 인류에게 이제까지 누려 보지 못했던 많은 기회와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화는 정치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주입시켜 정부를 좀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 있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를 도래시켜 완벽한 정보를 가진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현지화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치의 원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세계화는 인민주권보다 기업주권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글로벌 행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⁵⁾

세계화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 전쟁에서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가 합심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1) 한배호 편,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 1996, p. 472

2) 위의 책, p. 413.

3)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1995, pp. 361-62

4) 세계화 추진위원회,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1995, pp. 11-23. 한배호 앞의 책, p. 437 재인용.

5) 안택원 외,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 23.

품질을 향상시키며,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더욱 더 기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며, 노동조합 이라든지 노동운동 같은 것에는 신경을 꺼야 한다고 한다. 이 뒤바뀐 현실 속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인격, 공동체 나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된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⁶⁾ 그리고 20대 80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대 80의 사회'라는 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이 20%의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돈벌이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80%는 실업자가 된다. 그들은 실업자 상태로 생존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⁷⁾ 또한 영상매체, 광고, 스포츠, 음악 시장이 국경선을 넘어 확장되면 될수록 세계시장은 그 만큼 좁아진다. 지구촌이 점점 좁아지고 여러 문화 사이의 동화작용이 촉진될 것이다. 그 결과 문화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범지구화된 단조로운 미국식 문화가 일률적으로 전세계 문화를 휩쓸게 될 것이다.⁸⁾

그러나 글로벌 문화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다차원적 동시 공존인 것이다. 글로벌 문화가 형성될수록 세계 사회는 다원화되며, 세계적 공존으로서의 다양성이 심화된다. 세계화 답론은 각 민족 혹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공동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가 가능하다.⁹⁾

2. 세계화와 지방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분권화와 지방화이다. 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분권화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혹은 '지방'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지방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성하고 형성 받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지방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방화는 다양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방화는 대응면적을 넓히는 것이고 상용용량을 키우는 것이다. 지방화가 세계화 전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¹⁰⁾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의식을 세계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이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편견과 편협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지방 재정의 자치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이다.

문화의 세계화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로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들이 공존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것이 문화의 세계화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한국 문화가 바로 세계 여러 바람직한 문화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는 뜻이고, 또 이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¹⁾

세계화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세계 여러 나라 혹은 여러 지방과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주도가 직접 세계의 기업, 투자가, 관광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확보하여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제주도의 문화를 세계화 하면서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3.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용어는 동일성, 연속성, 소속감 및 일체감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이다. 따라서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란 제주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제주인이라는 집단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 경계가 지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인들이 한반도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육지와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게 되었

6) Hans-Peter Martin · Harad Schumann, 「세계화의 덫」, 강수돌 역, 영림카디널, 1998, p. 14.

7) 위의 책, p. 26.

8) 위의 책, p. 50.

9) 김경원 · 임현진 공편, 앞의 책, pp. 85-86.

10) 위의 책, pp. 370-71.

11) 위의 책, p. 379.

다. 지금도 언어, 민속과 문화 및 가족 친족 조직에는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제주도 적인 것' '제주도에 특이한 것'이 제주도의 아이덴티티이며, '제주인은 누구인가' '제주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제주인의 아이덴티티이다.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역사에 나타난 아이덴티티, 자아 아이덴티티, 사회·문화적 아이덴티티 그리고 의식에 나타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의 역사에 나타난 아이덴티티는 '순응과 저항'이다. 순응의 아이덴티티는 정치, 경제 및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고, 저항의 아이덴티티는 수탈과 억압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이다. 조남정신, 수눌음 정신, 자립정신, 평등의식, 이어도 정신, 공동체 의식 및 근면성과 강인함은 순응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민란 및 외지인, 외지 자본에 대한 배타심, 지역개발에 대한 반대, 행정관리에 대한 반발 등은 저항의 아이덴티티로 해석된다.¹²⁾

자아 아이덴티티를 보면,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제주도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느끼고 있고 욕지에 가셔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가능하면 자녀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제주인으로서의 자아 아이덴티티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¹³⁾

제주인의 사회·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가족·친족, 공동체 의식, 가치관, 평등의식 순으로 기술하기로 한다.¹⁴⁾

가족·친족 의식을 보면, 분가주의 의식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독립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균분상속 의지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의식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농어촌에서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 같이 도와주고 있으며,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계를 들어서 상부상조하고 있고 발일의 많은 부분을 수눌어서 하고 있으며, 해변 마을에서는 툇이나 우뭇가사리 등의 채취와 판매를 마을 별로 공동관리를 하고 있다.

재일 제주인들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및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주일보사가 조사한 설문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89%) 제주도 출신이었고 뿐만 아니라 미혼의 자녀들에게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11%) 또는 '가급적'(39%) 제주도 사람을 택하겠다는 등 제주도 출신끼리 혼인을 선호하고 있는 데서도 이런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¹⁵⁾

가치관과 관련해서 보면, 제주인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립심과 독립심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남정신은 제주사회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제주 사회에서 타파해야 할 폐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허례허식과 사치풍조를 들고 있다. 이것과 관련시켜 보면, 조남정신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인의 강인함과 검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며 검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검소한 생활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배타심과 열등의식을 보면, 배타심의 경우 자신이 외지인에게 경계심을 가지거나 거리감을 느낀다는 평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다른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인식하는 데 대해서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과거에 고립된 사회에서 제주인들이 가졌던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은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할 정도의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열등의식의 경우, 대다수 응답자들이 제주인들의 능력이 욕지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욕지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당당한 자세를 취한 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가졌던 열등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평등의식의 경우, 제주도의 평등 사회적인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주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녀평등과 재산상속 및 제사상속의 평등의식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의식상에서 아이덴티티를 보면, 근검, 소박한 생활태도와 진취적 기상에서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가져다주는 외부에의 진출 성향이 강하다. 재일 동포나 출가 해녀들처럼 해외 진출의 기회가 왔을 때 제주 사람들은 과감하게 섬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 기상을 보였다. 또한 제주인들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을 안다. 제주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자기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결국 제주에 도둑과 거지가 없는 생활 분위기의 바탕이 되고 이러한 생활 윤리가 도민들에게는 평등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2)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제15집, 1998, p. 143.

13)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90, pp. 214 ; 김항원 외 3인, 「제주인의 의식 조사와 제주 정신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 1996, pp. 87-88.

14) 김항원, 앞의 논문, pp. 124-74 ; 김항원 외 3인, 앞의 논문, pp. 78-88.

15) 이문용, 제주일보, 1989, 7면.

16) 신병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1997, pp. 82-83.

4. 세계화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세계화는 제주 사회에 개방화, 효율화와 능률화, 법질서 확립, 정의의 사회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화는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중앙 정부와는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나 지역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이다. 효율화와 능률화는 제주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및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규칙과 관행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세계화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법에 기초한 질서를 확립하고 법규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다. 정의사회 건설은 정의사회만이 제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정치와 행정은 정의사회 실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세계화 시대에 제주인의 아이덴티티와 제주 문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한다. 분명히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성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으로써 하여금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며 서로 주고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독특성과 다양성 때문에 다원적인 사회관계가 형성되었다. 다원성은 통상 어떤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태주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논리는 개인 아이덴티티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아이덴티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계인들과 교류할 때 제주의 문화를 세계화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문화가 몰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데 그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문화가 모든 사회, 국가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투영되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문화는 각 사회, 국가의 특수성 속에서 재조정되고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반영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¹⁸⁾

세계화 시대에서도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는 세계화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인의 의식을 세계시민의식으로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의식이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편견과 편협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인의 민주의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의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며,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의식 중에서도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으며, "제주인의 법의식은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부정적이다."¹⁹⁾ 민주의식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평등의식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율성 면에서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하기보다는 연줄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관공서 일을 아는 사람을 통하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줄을 찾아 일을 처리하는 면이 강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²⁰⁾ 데서도 알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인들의 의식 속에는 열린 사고보다는 폐쇄적 사고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제주인들은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식보다는 편견과 편협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인들의 배타심과 열등의식은 '고립된 주변 문화의 특수성' 또는 '도서성' 그리고 외부의 지배와 수탈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로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타적 성격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능적 측면이 있음에 틀림없으나 자칫하면 외부인과 외부 세계를 배제하는 배타성을 다른 모습으로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주인들의 폐쇄적 사고는 열등의식과 배타성의 연장이며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自己卑下의 발로'이다.²¹⁾

이러한 배타심과 열등의식 및 폐쇄적 사고는 제주도의 세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세계화는

17) Anton Rauscher, "세계화 시대의 인간 공동체를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세계화 시대의 민족 공동체』, 증명, 1998, p. 117.

18) 김경원·임현진 공편, 앞의 책, p. 87.

19) 김향원 외 3인, 앞의 논문, p. 60.

20) 위의 논문, pp. 56-58.

21) 신형철 외, 『世界化時代の 社會文化意識』, 集文堂, 1997, pp. 156-158.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과 교류하면서 살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인들은 세계 수준의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는 세계화를 위해서 긍정적이기 보다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인들은 역사 속에서 순응과 저항의 삶을 살아왔다. 거칠고 고립된 자연환경과 건디기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에 순응하면서 생존하려는 삶의 지혜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로 형성되었다. 한편 계속되는 생활고와 수탈 및 외적의 침입은 탐관오리와 외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순응과 저항'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세계화를 위해 지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은 순응과 저항이라는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응전으로는 제주인으로서의 자존을 지키면서 제주도를 선진 복지사회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을 과감히 수용하면서 이것을 창조적으로 이용하여 제주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열린의식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속에 세계화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아 아이덴티티, 자립심과 독립심, 공동체의식, 강인함과 검소, 평등의식 및 진취적 기상 등은 세계화에 맞게 개선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아이덴티티들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화에 저해되는 합정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자아 아이덴티티는 좋은 것이지만 맹목적이고 배타적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도에 살려고 한다면 세계를 향해서 뺄어나가는 데에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 제주인들 간에 결속하고 서로 도우면서도 외부인들에게는 배타적이라면 세계화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모든 인간을 같은 세계인으로서 존중하며 서로 돕고 경쟁하면서 살지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기존의 배타적 공동체는 설자리를 잃게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열린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공동체의 개념이 바뀌며, 혈연 지연 문화 경제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약해지고 그러한 경계를 넘어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²⁾

그리고 제주인들의 진취적 기상도 단순히 섬을 떠나려는 소극적인 진취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세계를 향해 나가 세계인들과 경쟁·협력하면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진취적 기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과감히 개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1995.
김항원,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김항원·고성준·김진영·강근형, 「제주인의 의식 조사와 제주정신 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 1996.
동아일보 2000. 3. 23. A23면.
세계화 추진위원회,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1995.
신행철,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1997.
신행철 외, 「世界化時代의 社會文化意識」, 集文堂, 1997.
안택원 외,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이문용, 제주일보 1989, 7면.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제15집, 1998.
한배호 편,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 1996.
Martin, Hans-Peter·Harad Schumann, 「세계화의 뒷」, 강수돌 역, 영림카디널, 1998.
Rauscher, Anton, 「세계화 시대의 인간 공동체를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세계화 시대의 민족 공동체」, 증명, 1998.

2) 동아일보, 2000. 3. 23. A23 면.